

현대국어 (역)문법화 논의를 위한 몇 문제*

양영희 (전남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맺음말 |
| 2. (역)문법화의 몇 문제 | |

국문초록

본고는 (역)문법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총체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 정리하여 앞으로의 본격적인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그동안 다양하게 규정되어온 문법화를 ‘문법 형태’의 측면에 방점을 두어 ‘어휘 단위가 문법 단위로 변하는 통시적·공시적 과정으로, 의미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는 언어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역문법화를 ‘문법 단위가 어휘 단위로 변하는 언어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또 본고는 (역)문법화와 어휘화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이견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역)문법화의 단위를 문법 형태로만 한정하느냐 아니면 어휘 범주까지로 확대하느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판·분석하여 본고는 어휘화와 (역)문법화는 관련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재분석이 허용될 경우는 (역)문법화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다.

* 본 논문은 2016년 1월 1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 59회 정기학술대회」의 발표를 다듬은 것이다. 좋은 조언을 해주신 토론자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문법 범주에 따른 (역)문법화 과정에 대한 기존의 견해 역시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명사·동사·형용사·부사> 의존명사·보조동사·관형사·대명사·접두(미)사> 조사·어미’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의 진행을 ‘역문법화’로 규정하였다.

주제어: 문법화, 역문법화, 어휘화, 문법 범주, 문법어, 내용어, 접(두)미사, 조사, 어미

1. 머리말

주지하듯이 문법화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관찰되는 현상인 만큼 일찍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 필자 역시 국어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유형화 작업을 소략하게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국어 (역)문법화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문법화의 정의부터가 연구자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용하는

1) 국어 문법화 연구는 문법 범주별의 진행 과정, 생성 기제 등에 초점을 두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낙천(2007: 312)은 국어 문법화 연구를 양주동(1939)에서 ‘-시-’의 기원을 ‘이시(有)’에서 비롯한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법화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하면서 그것을 조망한 업적으로는 이태영(1988=1993)이 대표적이고 명사 전반의 문법화 업적으로는 안주호(1997) 등이 대표적이다. 고영진(1997)은 한국어 문법화 전반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접근한 연구 이외에도 문법화의 단계성을 고찰한 김용경(2002), 조사의 문법화 과정에 관심을 둔 임동훈(2008), 이승연(2010), 이정민(2001), 허재영(2000) 등이 있으며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에 관심을 보인 허재영(2005), 이현희(2009) 등이 있다.

이에 비하여 서형국(2010)에서는 문법화의 연구 방법론을 개념 중심의 문법사 연구와 형태(어휘) 중심의 문법사 연구 방법론으로 이분하여 ‘새’의 형태 변화과정을 정치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용어와 개념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음을 새삼스레 깨달은 것이다.

최근 방향이나 방법에 따라 언어 현상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정의나 설명 과정의 용어 등이 최소한의 일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연구 목적 내지는 관점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만큼 연구 대상을 위한 기초 논의가 충분치 않음을 시사하는 까닭이다. 필자 역시 그동안 상황에 따라 문법화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태도를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²⁾

취지가 그런 만큼 논의를 진행하면서 문법화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접어’ 단계가 국어에서 과연 보편적으로 수용할 만한 단위인가, 또 자주 거론되는 어휘화와 문법화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거나 해석된 면이 없지 않았고 간략히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 경우가 많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는 역문법화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문법화와 구별할 이유가 없으면 (역)문법화로 지칭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따로 지칭하기로 한다.³⁾

2. (역)문법화의 몇 문제

2.1. 개념 정의

사실 역문법화는 문법화 입장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언어 현상이다. 문법

2)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백낙천(2007)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역문법화는 ‘Degrammaticalization’의 번역어로, 연구자에 따라 ‘탈문법화’로 일컫기도 한다. 본고는 국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역문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화는, 어휘형태소가 문법 형태소로 변하든지 통사적 구조가 형태적 구조로 변하든지 간에 단일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단일방향성 가설(undirectionality hypothesis)이 지배적인데 역문법화라는 용어 자체가 함의하듯이 이러한 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역문법화를 현대 국어에서 관찰되는 정당한 언어적 사실로 인정하여 문법화와의 관련을 전제로 하여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2.1.1. 문법화

우선 국어 문법화에 대한 기존 정의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어 문법화의 기존 정의

- 가. 독립한 자립적인 낱말로 쓰이던 것이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의존적인 어휘 혹은 문법적인 요소로 변하는 것.(고영진 1997: 30)
- 나. 실질 형태소가 의존 형태소로 변하는 현상 (이태영 1988=1993: 13)
- 다.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자립적으로 기능을 하던 것이 문법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안주호 1997: 15)
- 라. 어휘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가 문법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로 전환되는 것을 포함하여, 문법적 의미가 덜한 것이 문법적 의미가 좀더 강한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 (강희숙 2012: 64, 김문기 2007: 204)
- 마. 어휘적 의미가 문법적인 의미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공시적인 관점의 문법화(grammaticization)와 통시적인 관점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문법화는 통시적인 관점을 취한다. (이정민 2011: 4)
- 바. 어떤 변화 과정에 있는 단어가 본래의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단어들의 어휘적 의미들과의 연계를 보존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가 서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 (이정에 1998: 87)
- 사. 문법화는 역사적 변화 과정에 근거한 통시적 결과물로서 그 변화의 유형은 어휘 형태소의 의미가 추상화되어 문법 형태소로 되는 것과 통사론적 구성이 형태론적 구성으로 재구조화되는 언어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분포와 의미 단위의 변화를 수반한다. (백낙천 2007: 317)

국어 문법화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음이 새삼스레 확인되는 대목이다.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위의 견해들을 살피면 혼란스럽지만 조금만 찬찬히 살피면 다음과 같은 두 방향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2) 기존 문법화 정의에 내재한 두 가지 관점

가. 언어 단위: 낱말, 형태소, 통사론적 구조, 그 외(요소, ~것)

나. 과정: 자립적> 의존적, 어휘적> 문법적, 실질> 의존

즉 문법화가 ‘변화’를 기본으로 하는 언어 현상임을 전제로 (2.가)는 문법화의 최종 단위보다 출발 단위에 대한 이견으로, 그것을 낱말·형태소·통사론적 구조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간주하느냐의 문제이고 (2.나)는 이러한 단위의 기능을 고유한 의미를 구축한 [+어휘]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문법]으로 간주하느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문법화는 어떤 언어 형식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이므로 그것의 최종 단위는 문법 형태소일 수밖에 없지만 시작은 통사론적 단위인 구(언어)나 단어 혹은 형태소 등으로 다양할 수 있음을 반영한 이견이 (2.가)이고, 그러한 단위가 [+어휘]적 성격이 강할 수 있고 [+문법]적 기능이 강할 수도 있음을 반영한 이견이 (2.나)인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모두 가능하다. 어휘적 특성이 강한 형태소도

4) 이와 같은 양상은 다음에 참고로 제시한 서구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 완전한 자립적 단어에 문법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 문법적 주체자들의 역할로서 자율적 단어들의 전환 (Meillet 1948: 131)

나. 문법화란 어휘에서 문법적인 지위로 혹은 문법에서 더 문법적인 지위로 발전하는 형태소 범위의 증가에 달려 있다. (Kuryłowicz 1975 [1965]: 52)

다. 문법화라는 용어에 대해 언어 단위가 필연적으로 의미적 복잡성, 화용적 중요성, 통사적인 자립과 음성적인 자질을 각각 상실하는 진화로 언급한다. (Heine & Reh 1984: 15)

라. 언어학적 기호로서의 문법화는 언어적인 체계의 제약에 더 종속됨으로서 자립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Lehmann 2004: 155)

마. 문법화는 통사적인 변화로 그 변화에 의해서 구조적인 스키마의 부분들은 더 강한 내적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Haspelmath 2004: 26)

존재하고 문법적 특성이 강한 단어도 존재하는 까닭이다. 문제는 출발 단위를 단어 이하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통사론적 단위까지로 확대할 것이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3) 문법화 정의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로 변하는 통시·공시적 과정으로, 의미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는 언어 현상

여기에는 ① 통사론적 단위를 배제하며 ② 통시적 변화뿐 아니라 공시적 변화까지를 고려하지만 ③ 의미 변화를 필수 조건이 아닌 수의 조건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먼저 통사론적 단위를 배제한 배경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문법화에서 관심을 갖는 통사론적 구조는 다음 (4)와 같은 문장이다.

- (4) 가. 이왕 산 중턱까지 온 바에 꼭대기까지 올라갑시다.
가.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나.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일이 걸렸다.
나.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나. 나무가 정말 큰데.
다. 저 얘기는 아마도 열 번도 더 했을 것이다.
다. 차는 이미 떠날걸.

(4가, 나·나, 다)의 ‘바·데·걸’은 (4가, 나, 다)의 의존명사에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변하였다는 점에서 문법화로 간주된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의존명사는 관형사나 수사 등을 선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이들과 한 덩어리(단위)로 인식하기도 한다. (가)의 ‘바’와 (나)의 ‘데’는 ‘-(으)ㄴ’과 함께 ‘-ㄴ 바, -ㄴ 데’라는 통사론적 구조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1)에서 통사론적 구조를 문법화의 출발 단위로 간주했던 이유는 의존명사 구문의 이런 면을 참조한 때문이다. 5)

5) 이와 관련하여 ‘읽는 데’와 ‘고향인데’의 ‘ㄴ 데’가 같은 기능인가라는 의문이 제기

여기서 조사나 어미로 변하는 단위가 통사론적 구인가 아니면 의존명사나 보조동사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은 바, 읽는 데’에서 연결어미로 변한 언어 단위를 ‘ㄴ 바, ㄴ 데’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바, 데’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모국어 화자의 일반적인 직관에 의지한다면 후자의 관점이 정당하다. ‘읽는’의 ‘ㄴ’은 관형형 어미이고 ‘데’가 이 관형형 어미 ‘ㄴ’과 연결하여 결국에는 ‘ㄴ바’로 변한 것으로 이해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문법화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위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 할 수 있다. 문법화 논의에서 모든 통사론적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사나 어미로 변한 의존명사와 보조동사가 있는 구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면 통사론적 단위와 의존명사(보조동사)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 문법화를 정의해야 할 것인가도 분명해진다. 본고는 이런 맥락에서 통사론적 단위가 아닌 형태소에 방점을 두어 (3)과 같이 정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정의에서는 문법화를 통시적 변천으로만 규정하였는데 본고에서 공시적 변화까지를 고려한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이는 공시대인 현대 국어시기에도 문법화는 끊임없이 진행·생성된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가령 (4)의 ‘바·데·결’ 등의 문법화는 공시대인 현대 국어시기에 진행 중인 현상으로 ‘붙다> 부터, 쫓다> 조차’의 통시적 변화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보다 완전한 정의를 위해서는 전자의 상황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의에서는 문법화 과정에서의 의미 변천을 중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수의적인 현상으로 간주한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이 역시 문법화를 거쳤음에도 의미 변천을 찾아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수용하

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는 ‘관형형 어미 + 의존명사’임이 분명한데 후자의 ‘ㄴ’은 ‘서술격 조사+ㄴ+ 의존명사’로 이해되는 까닭이다. 여기서 필자는 ‘고향인데’의 ‘ㄴ데’는 ‘데가 연결어미의 기능을 확보한 후에’ ㄴ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향이+ㄴ’에서의 ‘데’의 형식으로서 ‘고향인데’와 같은 통사적 단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후의 문제는 차후에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 위함이다.

(5) 가. 예상했던 대로 시험 문제는 까다로웠다.

가.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나. 노력한 만큼(만치) 대가를 얻다.

나. 집을 대궐만큼(만치) 크게 짓다.

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이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위의 밑줄 친 예는 안주호(1997), 고영진(1997), 허재영(2002) 등이 의존명사> 조사의 문법화로 인정한 언어 형식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의미 변천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6) 가. 대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의존]/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냄 [보조사]

나. 만큼: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의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다. 뿐: 다만 어떠한가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의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냄. [보조사]

보다시피 의존명사로서의 의미와 보조사로서의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백낙천(2007: 315)에서도 '문법화에 의해 어휘 의미가 약화되거나 소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설령 변한 것으로 간주할지라도 어느 정도로 변했는가를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내기 또한 쉽지 않다. 물론 의미론 분야는 이러한 변화 정도를 계량화 하거나 유의어와 동의어의 모호성 정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필자 또한 모르지 않다. 그러나 의미 변천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적인 변천만으로도 문법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모호한 면을 문법화의 필수

조건으로 상정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1.2. 역문법화

역문법화는 문법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게 주목받은 언어 현상으로,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정의도 빈약한 편이다.

(7) 역문법화의 기존 정의

- 가. 문법화의 반대 방향으로서의 역문법화 현상은 ... 단일 형태의 경우에 일어나며, 어휘적 의미가 없는 기능어가 어휘적 의미를 갖는 자립적 어휘로 되는 것. (안주호 2002: 28)
- 나. 역문법화는 문법화의 연쇄 경로와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강희숙 2012: 66)
- 다. 탈문법화는 문법 형태소가 특정 문맥에서 하나 이상의 층위(의미론, 형태론, 통사론, 또는 음운론)에 대하여 자율성(autonomy)이나 실체(substance)를 획득하는 합성적 변화(composite change)이다. (Norde murie 2009/ 김진수 외 2013: 210)
- 라. 이러한 요소들이 일괄적으로 설명되지는 않더라도 문법화의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탈문법화’ 현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노명희 2013: 130)

여기의 요체는 역문법화를 ‘문법화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는 점과 ‘자율성이나 실체를 획득하는 변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법화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보면 자율성과 실체는 자연스레 확보되므로 결국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문법화의 정의는 이미 규정한 문법화를 역방향으로 해석하면 될 터이다. 하지만 본고는 이런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8)과 같이 수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8) 문법형태소가 어휘형태소로 변하는 언어 현상

(3)에서 이른바 수의적 조건으로 간주했던 통시·공시적 변화와 의미 변

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문법화와 달리 역문법화는 의미 변화가 거의 없으며 공시대인 현대 국어시기에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안주호(2002: 28)에서도 역문법화의 판단 척도는 ‘자립도’의 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노명희(2013: 132)에서도 ‘탈문법화된 요소의 의미는 변화 이전의 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9) 가. 홍길동 님/길동님 <표준>

가. 님하... 개념 탑재하삼, 님 아즐드셈 (이정복·양명희·박호관 2006: 77)
 나. 그는 빛 때문에 고생을 했다./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표준>

나. 그러나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유권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한 듯하다. 때문에 돈이 없어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안주호 2002: 35)

(9.가)는 의존명사 혹은 접미사로 쓰이던 ‘님’이 2인칭대명사(가)로 역문법화한 예이며⁶⁾ (9.나)는 의존명사였던 ‘때문’이 접속 부사(나)로 역문법화한 예이다. 그런데 이들의 의미는 다르지 않아서, ‘님’은 공히 [높임]을 뜻하고 ‘때문’ 역시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위 (8)의 정의는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⁷⁾

2.2. 용어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다소 장황하게 (역)문법화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문법화의 정의가 연구자 수만큼이나 많다는 점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
- 6) ‘님’은 강희숙(2012), 시정곤(2010), 노명희(2013) 등에서 현재 역문법화의 전형으로 인정한 언어 형식이다. 그러나 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역문법화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7) 이러한 변화한 의미는 사전에 아직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언중들에게 자주 사용되어 공인된 기능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등재될 터이다.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역)문법화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혼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목을 요한다.

2.2.1. (역)문법화와 어휘화

어휘화의 (역)문법화 수용 여부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대표적인 문제로, 역문법화의 입장에서든지 문법화의 입장에서든지 간에 어휘화를 인정하는 관점과 인정하지 않은 관점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10) 어휘화에 대한 문법화의 입장

가. 긍정적: 어휘화와 문법화는 모두 축약의 과정인데 단지 다른 방향 즉 어휘부와 문법부 사이에서 각각 나타난다. 어휘화는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이 전치사와 함께 새로운 어휘 통합체 (lexical unit)를 만들 때 생기는 것으로 어휘와의 이런 유형은 새롭고 복잡한 어휘적 통합체가 문법적 범주 방향으로 움직여 더욱 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즉 문법화의 준비 단계로 구성됨 (안주호 2002: 27/ Stein 2000, 5-6의 재인용)

나. 부정적: 기능어가 아닌 내용어로의 변화는 조어법의 합성법 (compounding)과 관련된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문법화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화론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법화와 구별한다. (이성하 1998: 57)

(11) 어휘화에 대한 역문법화의 입장

가. 긍정적: 어휘화는 역문법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문법적인 지위에서 어휘적 지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좀더 문법적인 요소가 더 어휘적인 내용으로 변하는 것. (노명희 2013: 150)

나. 부정적: 문법어에서 내용어로의 전이는 역문법화된 항목의 구조적인 독자성이 보존된다면 역문법화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기능어나 형태소가 ‘그것들이 속해 있는 문맥에서 제외되는’ 내용어로의 변화는 역문법화가 아니라

어휘화로 간주될 것이다. (Norde murie 2009/ 김진수 외 2013: 27)

위에서 보다시피 어휘화를 대하는 (역)문법화의 입장들은 같지 않다. 도대체 어휘화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가라는 새삼스런 의문까지 제기하게 한다. 구본관(1993: 119)에서 언급한 대로 어휘화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어 단위가 통사부가 아닌 어휘부에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점과 재분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인다.⁸⁾

(12) 어휘화의 예

- 가. 이나마, 마음대로, 이에서 (구본관 1993: 119)
- 나. 짐झ다, 적झ다, 편झ다 (안주호 2002: 27)

(12.가)의 경우, 처음에는 ‘이·마음·이’와 같은 명사 혹은 대명사와 ‘나마·대로·에서’ 등의 조사가 결합하여 사용되다가 하나의 형태로 굳어져서 재분석을 허용하지 않게 된 언어 단위이며, (나)는 ‘짐지 않다·적지 않다·편하지 않다’가 축약하여 재분석을 허용하지 않게 된 언어 단위로 이러한 진행 과정을 어휘화와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법화의 입장이든지 역문법화의 입장이든지 간에 어휘화를 수용하는 관점에서는 어휘를 (역)문법화의 한 단위로 파악하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문법’적 기능에 관여하는 언어 형식만을 (역)문법화의 단위로 인정한다. 요컨대 (역)문법화에 참여하는

8) Norde murie(2009/ 김진수 외 2013: 30-31)에서는 어휘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가. 어휘화는 구성단위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이며, 내적분석의 포기를 수반한다.
- 나. 어휘화는 변화이다. ... 화자는 특정한 언어학적 문맥속에서 형식적이고 의미론적인 속성을 지닌 새로운 구성 형태로 통사론적 구문이나 어형성을 이용하여 되는데 그것은 구문이나 어형 패턴의 구성 요소로부터 완전히 파생적이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적 구성성분의 소실이 일어나 그 항목은 더 어휘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Brinton & Traugott 2005: 96)

단위를 문법적인 것으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어휘까지 확대하느냐가 (11)과 같은 의견 차이로 표출된 것이다. 그런데 어휘화를 역문법화로 간주하지 않은 입장에서도 재분석이 허용되는 경우는 역문법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 (13) 문법어에서 내용어로의 전이는 역문법화된 항목의 구조적인 독자성이 보존된다면 역문법화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이고(적어도 처음에는) 기능어나 의존명사가 ‘그것들이 속해 있는 문맥에서 제외되는’ 내용어로의 변화는 역문법화가 아니라 어휘화(lexicalization)로 간주될 것이다. Norde murie(2009/ 김진수 외 2013: 27-28)

즉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역문법화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 (14) 가. 초 잘생긴 친구의 흠피라니?
나. 초 짜증난다.
다. 왕 오랜만이다.
라. 왕 기분 좋았다.

여기의 ‘초’와 ‘왕’은 강희숙(2013)에서 ‘접두사> 부사’의 역문법화로 규정한 언어 형식이다. 그런데 이들은 (12)와 달리 각각 ‘초(왕)+ 동사’로 재분석이 가능하므로 ‘역문법화로 허용될 수 있는’ 언어 형식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본고는 여기에 동의하여 ‘재분석이 허용되는 어휘화 단계만을 역문법화로 간주’하고자 한다.

2.2.2. 접어(clitic)와 굴절 접사(inflexional affix)

접어는 (역)문법화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으로 국어의 접두사 혹은 의존명사·보조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노명희(2013: 139)가 전자에 해당하고 안주호(1997), 강희숙(2012)⁹⁾ 등이 후자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견해 차이는 다음에서 제시한 접어의 특성을 다르게 해석

한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 접어의 정의

저 혼자 독립해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것에 기대어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가. 형태: 형태적으로 독립성이 없음: I'm, you're의 'm, 're

나. 음운: 강세를 받지 못함

다. 통사: 통사적 의존성, 예컨대 대명사에는 붙어서 쓰일 수 있지만 명사에는 붙어서 쓰이지 못함: They're: *The boy're (이성하 1998: 72-74)

즉 (15)와 같은 특성을 안주호(1997) 등은 의존명사(보조동사)로 파악하고 노명희(2013)은 접두(미)사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들 모두가 (15)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의 강세 여부는 국어와 무관하며 의존명사와 보조동사의 경우 불안전하나마 형태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접두(미)사의 경우는 형태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와 같은 차원의 통사적 제약은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까닭이다. 요컨대 접어에 대응하는 국어 단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기존 논의에서는 접어를 고수하였을까. 서구의 (역)문법화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그리 되지 않았나 한다. 일반적으로 국어 문법화 과정은 다음에 의지해서 이해되어 왔다.

(16) 문법화의 진행 방향(Hopper & Traugott(1993))

content item(내용어) > grammatical word(문법어) > clitic(접어) > inflectional affix(굴절접사)

이에 따라 접어를 필수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어 범주를 찾

- 9) 사실 강희숙(2012: 66)은 접어를 문법화 단위로 설정하였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국어의 어떤 단위를 그것으로 이해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접사를 따로 설정한 점으로 미루어 의존명사나 보조동사와 같은 단위를 접어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으려 한 결과가 위와 같은 의견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그러지 않고서야 국어 범주에 존재하지 않은 접어라는 개념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터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16)의 과정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어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대응 방식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굴절접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요한다. 이 역시 접어, 접사의 개념들과 혼용되면서 불분명하게 인식되어온 까닭이다. 노명희(2013)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접두(미)사를 접어에 대응시키면서 접사와 구별하였고, 강희숙(2012)는 접두(미)사를 접사에 대응시키면서 굴절접사와 접어라는 문법 범주를 따로 설정하였다. 여하튼 국어 범주에 굴절접사라는 단위는 없으므로 접어처럼 (역)문법화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굴절접사의 실체는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된다.

(17) 굴절형태소와 파생형태소

가. 굴절형태소: 완전한 독립성을 잃고 다른 단어의 일부로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 있는 형태소, 국어의 조사와 어미(이성하 1988: 77-84)

나. 파생형태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조어법에서 사용되는 형태소. 파생형태소의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 접요사와 접환사로 나누어진다. (이성하 1988: 66-67)

곧 (16)의 굴절접사는 (17.가)의 굴절형태소로서 국어의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의 접두(미)사는 (17.나)의 파생형태소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따라서 (16)의 문법화 과정을 국어에 적용해 보면 그것의 최종 단위는 조사와 어미로 확정된다. 이쯤에서 접두(미)사가 어디에 해당하는가가 궁금해진다. 접어를 인정하지도 않고, 굴절접사를 조사와 어미

10) 이는 안주호(1997)에서 접어를 의존명사로 규정하면서도 명사의 문법화 단계를 ‘의존명사(1단계)> 접어(2단계)> 조사·어미(3단계)’로 나누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과연 여기의 의존명사와 접어는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토록 한다.

로 규정짓는다면 접두(미)사는 (16)의 범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가 의문시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항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접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굴절접사의 실체를 파악하였다는 점에 만족하기로 하자.

2.3. (역)문법화의 과정

이미 언급했듯이 국어 (역)문법화 진행 방향은 서구 이론인 (16)에 근거해서 논의되어왔다. 그런 까닭에 용어나 개념 등이 국어 범주와 일치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검토와 정리를 요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제 접어에 대응시켜온 의존명사와 보조동사, 접두(미)사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등이 당면 과제로 부상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어 (역)문법화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가 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2.3.1. (역)문법화의 문법 범주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앞의 (16)에서 소개한 문법화 과정을 다시 가져온다.

(18) 문법화의 진행 방향(Hopper & Traugott(1993))

content item(내용어) > grammatical word(문법어) > clitic(접어) > inflectional affix(굴절접사)

이런 내용이 국어 문법화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수용되었다.¹¹⁾

11) 문법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Bybee et al(1994)의 관점을 이성하(1998: 193) 등에서 수용한 것으로, 문법화를 음운, 문법, 의미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본고는 문법화에서 의미의 추상성을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으

(19) 문법화 과정: 문법 범주별

- 가. 자립적 어휘소 > 의존적 어휘소 > 접어 > 어미 · 조사 · 접미사
(안주호 1997: 39)
- 나. 자립어(free word) > 접어(clitic) > 접사(affix) (노명희 2013: 140)
- 다. 주범주(명사, 동사) 중간범주(형용사, 부사) > 소범주(접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 > 접어 > 굴절접사 (강희숙 2012: 66)

문법화 과정을 (19)와 같이 구체적인 언어 단위로 적시해 주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았던 접어를 비롯한 관사, 조동사 등의 영어 범주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뿐만 아니라 동일 범주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기도 한다. 보다시피 (18)의 굴절접사가 (19.나)에서는 접사로 수용되었으며, (19.라)에서는 접사와 굴절접사, 접어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이미 반성하였던 대로 (18)의 과정을 국어에 그대로 대응시키려 한 데서 오는 혼란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전항에서 이러한 면들을 살피면서 접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굴절접사를 조사와 어미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내용어와 문법어의 실체를 파악하면 국어 범주으로써 (18)의 문법화 진행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성하(1988: 61)의 다음과 같은 문법어 정의를 참조하기로 하자.

- (20) 자립적인 형태를 가진 문법소, 기능적으로 문법적 개념을 표시해 주는 단어이지만 형태상으로는 개별적인 단어로 존재하면서 통사적으로도 비교적 독립성을 띠고 있는 문법소. (영어: 관사, 접속사,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국어: **의존명사**, **보조동사**)

므로 여기서는 문법 범주에 따른 과정에 논의의 초점을 모으기로 한다.

- 가. 의미: 구체적 > 추상적
- 나. 음운: 자립적 > 의존적
- 다. 범주: 어휘적 > 문법적 (강희숙 2012: 65, 안주호 2002: 28, 이성하 1992: 193)

보다시피 (20)에서 국어 문법어로 적시한 범주는 ‘의존명사·보조동사’이다. 그런데 영어 단위에서 대명사를 포함시킨 점을 감안하여 이 단위까지 포함시키면 국어 문법어는 ‘의존명사·보조동사·대명사·관형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존에 접어로 해석해왔던 의존명사와 보조동사는 여기에 포함되므로 접어라는 개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국어(역)문법화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하등의 무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여하튼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국어 문법화 문제는 이제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내용어(content item)에 해당하는 국어 범주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용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나 이성하(1988)에서 그것을 문법어와 대치되는 범주로 간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고유한 의미를 보유하는 ‘명사·형용사·동사·부사’ 등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접두(미)사를 어느 범주에 소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명희(2013)은 이들을 접어에 대응시키고 강희숙(2012)는 (18)에 언급되지 않은 접사로 간주하는 듯하다. 필자는 여기에 이렇다 할 견해를 더할 능력이 없다. 다만 접두(미)사가 자립적이지 않다는 면에서는 조사, 어미와 공통되고 어휘적 의미가 강하다는 면에서는 의존명사, 보조동사와 공통된다는 사실만이 인식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문법]보다는 [+어휘]성이 강한 의존명사, 보조동사와 같은 범주로 간주함이 타당할 듯하다.¹²⁾ 문법화는 [+문법]이 중요한 변별성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문법]성이 강한 조사나 어미보다는 그러한 자질이 상대적으로 덜한 의존명사나 보조동사에 근접한다는 생각에서 그러하다. 이상의 생각을 정리하면 미흡하나마 (18)의 범주에 대응하는 국어 문법 범주는 다음 (21)로 확정지을 수 있다.

12) 이렇게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예컨대 ‘새, 첫, 옛’등의 어형이 접두사(새봄, 첫사랑, 옛날)로 인지될 경우도 있고 관형사(새 기분, 첫 만남, 옛 추억)로 인지될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곧 동일한 어형이 다른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공히 ‘문법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역)문법화’에서 그러한 구별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21) 국어 (역)문법화의 문법 범주와 과정

가. 문법 범주

- ㉠ 내용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 ㉡ 문법어: 의존명사, 보조동사, 대명사, 관형사, 접두(미)사
- ㉢ 굴절접사: 어미, 조사

나. 문법 범주별 (역)문법화 과정

㉠ 문법화

명사·동사·형용사·부사> 의존명사·보조동사·대명사·
접(두)미사·관형사> 어미·조사

㉡ 역문법화

어미·조사> 의존명사·보조동사·대명사·접(두)미사·
관형사> 명사·동사·형용사·부사

국어 (역)문법화 과정이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부합하는 국어 범주별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18), (19)에 비하여 그 과정이 구체적이면서 수월하게 이해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3.2. (역)문법화 과정의 세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어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은 문제로 작용되기에 충분하다.¹³⁾ 이런 맥락에서 강희숙(2012), 김문기(2007)이 ‘더 문법적’ 혹은 ‘더 문법화’라는 관점에서 ‘내용어’와 ‘문법어’ 범주를 세분화하려 한 노력은 의미 있게 평가할 만하다.

(22) 가. 창 밖에 비가 온다.: 그 밖에 몇 명이 더 있다: 남은 사람은 너밖에 없다: 눈 감을밖에.

나.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 닮았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어미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듯.

13) 접어를 설정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앞서 살핀 대로 접어는 문법 범주와 차원을 달리하는 형태적인 측면의 연어이므로 이를 구성하는 언어 형식을 범주별로 나눈다면 결국 문법어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가)는 박승윤(1997)에서도 주목한 ‘밖에’의 문법화 과정을 용례로 제시한 것으로, (21)에 의지한다면 ‘의존명사> 조사·어미’의 2단계 문법화로 인정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런데 2단계인 ‘조사·어미’를 다시 ‘조사> 어미’의 변화로 인정하면 3단계 문법화로 간주된다. 조사의 ‘밖에’가 어미의 ‘밖에’보다 더 먼저 문법화하였다는 사실은 허재영(2002)에서도 찾아진다. 물론 두 변화 모두 현대 국어 시기에 생성된 현상이긴 하지만 문법화를 공식적인 현상의 하나로 정의하는 본고로서는 문제될 이유가 없다. 도리어 변화의 선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범주를 더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 계기로 간주된다. 문제는 어미가 조사보다 더 문법적이라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이다. 현재로서는 독립성의 여부에 따라 조사는 품사로 처리되지만 어미는 그렇지 않다는 점만이 편린처럼 떠오를 따름이다.

이런 문제는 (22.나)에서 고스란히 노정된다. 여기의 ‘듯’은 ‘의존명사> 연결어미·종결어미’의 변화로 (21)에 근거하면 2단계의 문법화로 분석되지만 다시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세분하면 ‘의존명사> 연결어미> 종결어미’라는 3단계의 문법화로 간주된다. 종결어미의 ‘듯’보다 연결어미의 ‘듯’이 더 먼저 생성되었다는 면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세분화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종결어미가 연결어미보다 ‘더 문법적’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 그러할 터이다. 조사와 어미의 문법화 정도보다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문법화 정도를 판별하기가 더 어렵다는 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로서는 종결어미는 문장의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지며 시제나 높임법 등을 나타내는 어미 뒤에 후치한다는 점에서 연결어미보다 문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생각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어 단위의 세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다음에서 더욱 절실히 해진다.

(23) 가. 사장님: 채린 님, 들어오세요. :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소.

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일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가)는 현재 강희숙(2012), 시정곤(2010), 안주호(2002) 등에서 대표적인 역문법화로 간주되는 ‘님’이다. 그런데 (21)에 의지한다면 ‘접미사·의존명사·대명사’라는 동일 단위(문법어) 안에서의 변화로서 역문법화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직관에 의지하여 접미사를 의존명사보다 더 문법적으로 간주한다면 (22.가)의 ‘님’도 역문법화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태도를 반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난제일 수밖에 없다. 의존명사가 접미사보다 덜 문법적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23.나)에서 표면화되기도 하였다. 여기의 ‘때문’을 안주호(2002)에서는 ‘의존명사> 접속부사’로 해석하여 역문법화로 이해하였지만 백낙천(2007)에서는 ‘품사 통용’으로 간주하면서 안주호(2002)를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1)에 의지하면 안주호(2002)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법어(의존명사)> 내용어(부사)’의 역문법화로 분석되는 까닭이다. 어떤 이유에서 백낙천(2007)이 품사 통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안주호(2002)의 생각이 정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21)과 같은 기준은 필요한데, 방대한 문법어를 어떻게 세분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된다.

3. 맺음말

본고는 국어 (역)문법화에 대한 정의, 용어 등이 일관되지 않음을 반성하면서 이들을 하나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정리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하였다.

먼저 그동안 다양하게 규정되어온 문법화를 ‘문법 형태’의 측면에 방점을

두어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로 변하는 통시·공시적 과정으로, 의미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는 언어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문법화가 반드시 ‘의미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으며 공시대인 현대국어 시기에도 진행·생성되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또 문법화가 역으로 진행되는 언어 현상이 역문법화라는 사실과 대부분이 공시대인 현대 국어시기에 생성된다는 점, 그리고 의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문법형태소가 어휘형태소로 변하는 언어 현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 그동안 (역)문법화와 어휘화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다. 그간의 요체는 (역)문법화의 단위를 문법 형태로만 한정하느냐 아니면 어휘 범주까지로 확대하느냐의 관점에 따라 어휘화에 대한 수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역)문법화와 어휘화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역)문법화와 어휘화는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본고는 어휘화와 (역)문법화는 관련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재분석이 허용될 경우는 (역)문법화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법 범주에 따른 (역)문법화 과정에 대한 기존의 견해 역시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명사·동사·형용사·부사> 의존명사·보조동사·관형사·대명사·접두(미)사> 조사·어미’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의 진행을 역문법화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접어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고 국어에는 적당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한편으로 (역)문법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일 단위를 문법화 정도에 따라 세분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별, 조사와 어미 혹은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문법화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필자에게는 그럴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희숙(2012), 「통신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 『한민족어문학』 61, 한민족어문학회, 61-87.
-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 구분관(1993), 「국어 과생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17-140.
- 김문기(2007), 「매인풀이씨의 문법화 양상」, 『우리말 연구』 20, 우리말학회, 203-225.
- 김유범(2008),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와 문법화」,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39-64.
- 노명희(2013), 「접미사 부류의 역문법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35, 반교어문학회, 129-164.
- 박승윤(1997), 「'밖에'의 문법화 현상」,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57-70.
- 백낙천(2007), 「국어 문법화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39, 한국사상문화학회, 309-328.
- 서형국(2010), 「어휘의 문법성 변화 원인을 찾아서」, 『한국어학』 48, 한국언어학회, 157-192.
- 시정곤(2010), 「국어 명사의 문법화 과정에 나타난 특이 유형에 대하여」, 『언어연구』 26-1, 한국현대언어학회, 105-127.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2), 「한국어에서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 10-4, 대한언어학회.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 『인터넷 통신 언어과 청소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 이태영(1993),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허재영(2002), 「문법화와 띄어쓰기 교육」, 『교육 한글』 14, 한글학회, 1-14.

Hopper &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Melit, Antoine, Linguistique Historique Générale, Edouard Champion, 1948.

Norde Muriel, De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2009. 김진수 외 (2013), 『역문법화』, 역락.

【Abstracts】

Issues concerning Discussions on Contemporary Korean (de)Grammaticalization

Yang Young-hee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re is no rudimentary discussion on (de)grammaticalization, and therefore tries to synthesize it extensively and consistently for future discuss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 defines grammaticalization, which has been defined diversely so far, as 'diachronic and synchronic procedures in which lexical units are transformed into grammatical units with possible changes in the meaning,' focusing on 'grammatical forms'. Based on this definition, degrammaticalization is defined as 'a linguistic phenomenon in which grammatical units are transformed into lexical units.'

In addition, this study notes that there have been different opin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It is due to the varying viewpoint, that is, whether grammaticalization units should be limited in grammatical forms or it should be expanded into the lexical category. Analyzing and criticizing these opinions, this paper takes a position that assumes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with the exception that the reanalysis is permitted. In this case, (de)grammaticalization is accepted.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existing viewpoints about the (de)grammaticalization procedure according to grammatical categories are also diverse and confusi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procedure

be arranged as ‘noun, verb, adjective, adverb>bound noun, assistant verb, determiner, pronoun, prefix/suffix> postposition, ending.’ Furthermore, the counter-procedure is defined as ‘degrammaticalization.’

Key words: Grammaticalization, Degrammaticalization, Lexicalization, Grammatical category, Function words, Content words, Prefix/Suffix, Postposition, Ending

이 논문은 2016년 1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